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 제주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이 은 주

2014년 8월

제주지역 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 제주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인 회

이 은 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이은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3
3. 연구의 한계	4
4.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사교육 및 사교육비	6
가. 사교육	6
나. 사교육비	8
2. 사교육비 부담	9
가. 사교육비 부담 현황	9
나. 사교육비 부담추이	11
다. 제주지역 사교육비 부담 현황	13
3. 주요 사교육비 경감 정책	15
가. 김대중 정부 시기	15
나. 노무현 정부 시기	16
다. 이명박 정부 시기	17
라. 박근혜 정부 시기	17
4. 선행 연구의 고찰	18
III. 연구방법	21
1. 연구 대상	21
2. 연구 도구	22
3. 자료 분석	23
IV. 연구결과 및 해석	24

1. 제주지역 사교육과 관련한 특징적 사항	24
2. 교사, 학부모,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34
3. 교사, 학부모, 학생의 사교육비에 대한 인식	38
4. 교사, 학부모, 학생의 사교육 경감방안 효과성 인식	40
V. 결론 및 제언	42
1. 요약	42
2. 논의	44
3. 결론	46
4. 제언	47
참고문헌	49
ABSTRACT	51
부록 제주지역 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54

표 목차

<표 II-1>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10
<표 II-2>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12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19
<표 III-2> 설문지 영역별 문항 구성	21
<표 IV-1> 제주지역 학벌주의 심각성 및 입장	22
<표 IV-2> 제주지역의 사교육 과열정도	24
<표 IV-3> 제주지역 사교육비 인식	24
<표 IV-4> 제주지역 사교육비 인상에 대한 인식정도	25
<표 IV-5> 제주지역 사교육비 증가 원인	26
<표 IV-6> 제주지역 입시학원 수 증가 원인	27
<표 IV-7>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여부	28
<표 IV-8> 방학기간 원하는 참여 프로그램	32
<표 IV-9> 타인과의 성적 비교에 대한 인식	33
<표 IV-10>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	34
<표 IV-11> 사교육 현황	36
<표 IV-12> 사교육에 대한 인식	37
<표 IV-13> 사교육비에 대한 인식	39
<표 IV-14> 사교육 경감방안 효과성에 대한 인식	41

그림 목차

[그림 II-1] 교육비의 분류체계	8
[그림 II-2]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부담 추이	12
[그림 II-3] 전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부담 추이	14
[그림 II-4] 제주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부담 추이	15

【국문초록】

제주지역 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 제주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

이 은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이 인 회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사교육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사교육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추후 사교육비 경감 또는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시지역 사교육과 관련한 특징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사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일반적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사교육비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를 위해 제주시지역 중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학생 225부, 학부모 217부, 교사 77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의 사교육에 대한 특징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제주지역 학벌주의의 심각성에 대해 교사는 타 지역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학부모는 타 지역과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학생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주지역의 입시학원 수 증가 원인으로 교사, 학부모는 공통적으로 제주지역의 높은 교육열을 들고 있었고, 방학기간 동안 원하는 참여프로그램으로 교사는 ‘자연 생태체험학습’에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교과목 보충학습’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교사, 학부모는 공통적으로 제주지역의 높은 교육열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가 교사보다 ‘교과목 보충학습’에 열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학력 향상 욕구나 학벌주의가 타 지역에 비해 과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해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교진도를 따라가기 위해’가 두 번째였다.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제주지역 공교육의 강화’를 들고 있는 점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사교육비에 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교사 및 학부모, 학생 모두 월 사교육 지출 비용에 대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부담감에 대해서 ‘다소 부담됨’에 각각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2004년 연구와 비교하여 부담감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전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여러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미온적 입장을 보여 그동안의 경감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만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쉽게 나오기 어려움을 의미하여 사회 구조나 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과외 전면 허용 정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교육 과열 현상은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2012)가 발표한 2011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이 6.5% 증가로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11년 11월 자료에 의하면 인구 1만 명 당 학원수가 전국 5위로 나타났다(제주시교육지원청, 2012).

제주지역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사교육 수요로도 나타나지만 그 결과 또한 두드러진다. 2007년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의원(한나라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학년도 서울대(정시)에 합격한 제주학생들이 거둔 수능 성적은 서울대 합격생의 17개 지역 수능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연계의 경우 제주가 66.8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문계는 67.14점으로 2위였다. 이어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수능 성적 또한 제주지역이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액)는 2010년 기준 1890만원으로 16개 광역시·도 중 12번째이며, 농·수·축산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유리한 교육 여건을 따라 서귀포시나 읍면지역 인구가 제주시 지역으로 몰리면서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의 위기에 있고, 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은 마을마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반면 제주시 도심지역은 인구 유입으로 과밀, 과대학급 해소를 위해 신규 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주시 지역 학원 수는 2014년 3월 말 기준 885개에 달한다(제주시교육지원청, 2014). 이 또한 대부분이 제주시 연동, 노형동, 이도동 등 도심지에 몰려있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학이나 굴지의 대기업은 서울에 몰려있다. 사교육에 투자하는 학부모들 중 자녀를 제주도의 1차 산업에 종사시키고 싶어 하는 학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 과열 현상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제주도를 더욱 떠나고 싶은 섬으로, 비전이 없는 섬으로 느끼게 할 우려가 있고 장기적 발전에

있어서 제주도를 더욱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

한편 사교육 과열 현상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교육비 유발 원인 조사 및 경감 방안 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박세정(2009)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 여부는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교사 학부모와 일반 학부모 모두 ‘자녀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심화 학습’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사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대입 전형제도 개선’과 ‘학벌위주의 사회적 풍토 개선’을 들고 있다. 백혜숙(2007)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공교육 담당자인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사교육비로 흐르는 자본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론의 장 형성, 학부모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김미경(2002)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학교 교육정책 개선, 학부모의 의식 변화, 학력주의적인 사회풍토 개선을 들고 있다. 또한 한국은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교육을 통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은 경쟁적 동기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에 만연한 학벌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호(2004)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입시 전형방법 개선, 학부모의 의식 및 사회 풍토의 변화, 학교교육 정상화, 위성교육방송 및 인터넷 방송의 알찬 운영, 방과후 특기 적성활동 내실화를 주장했다.

이처럼 사교육 과열 현상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입시제도의 개선, 학교 정책의 개선, 학부모의 의식 개선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사교육 과열 현상은 단기적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며 근본 원인중 하나가 교육 수요자들의 의식 속에 내재해 있고 복잡한 사회구조와 연결되어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다한 사교육비가 사회 문제가 된 지 약 1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이중으로 지출되는 막대한 교육비는 경제적 비효율을 낳고 입시 위주의 과열된 교육열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

달을 저해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나 범죄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농·수·축산업 및 관광업이 대부분의 산업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는 인구의 유출 및 진로와 직업의 괴리를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선 인식 조사 등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보면 이제는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 대책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교육열을 효과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연구할 시점이 라 여겨진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은 나라 전체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교육 유발 원인을 덮어놓고 억제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의 사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고정옥(2004), 현상진(2004), 양진건과 박종필(2004)의 연구가 있는데 모두 10년 전 연구들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변화와 정책에 걸맞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사교육에 대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사교육비 관련 대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문제

이 연구에서는 제주시 중학교의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제주시 지역의 일반적인 사교육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 사교육비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시지역 사교육과 관련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사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사교육비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제주시 지역 사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여 사교육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제주지역의 사교육비 경감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연구의 대상을 제주시 중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사로 한정, 설문조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사교육

사교육에 대한 개념은 교육학계,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희일, 이두휴(2002)에 의하면 설립·운영의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교육을 공교육으로, 민간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사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임미순(2008)은 제도권, 즉 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사교육의 정의는 후자에 가까우며, ‘과열된 사교육’이라 하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그룹지도, 학원 수강, 학습지, 통신 및 인터넷 과외 중 예체능계 과목 및 맞벌이 부부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의 보육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제외한 것으로 정의한다.

나. 사교육비

OECD에서는 교육비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공교육비, 민간인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사교육비로 나누고 있다. 백혜숙(2007)은 교육활동에 투입되기는 하지만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지출하는 경비’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며, 다소간 공교육비와 중복투자

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교육활동에 지출되는 모든 경비로 정의하고 있다.

다. 경감방안

이 연구에서 경감방안은 무엇인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 또는 계획으로 가게 재정에 부담감을 느끼면서까지 지출하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며, 가게 단위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의미한다. 사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사교육비에 대해 ‘경감대책’, ‘경감정책’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는데 대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 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므로 ‘방안’이라 하면 앞의 두 개념을 아우르는 폭넓은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교육 및 사교육비

가. 사교육

사교육의 유형은 사회 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교육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습지, 인터넷 강의를 주를 이루고 있다.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을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적 분류에 의하면 학원의 분야는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 직업기술 학원으로 구분된다. 법률에 명시된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를 간추리면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 기타 법령에 정해진 곳에서 교습비를 받고 초등·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관할행정청을 통한 신고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신고 불법 과외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외에 대한 정확한 추산은 어려운 실정이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신고된 제주시 지역 개인과외교습자의 수는 2013년 12월 20일 현재 775명이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은 심야 교습시간 제한이 없어 이른 새벽까지 또는 합숙 형태로 운영될 수 있게 청소년들의 심신의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사교육은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은 학교 교육의 보완, 보충 기능을 수행한다. 학교에서 개별 학생들에게 필요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은 개별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사교육은 국가의 교육 투자 행위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수영을 배우고 싶은 학생이 소수일 경우, 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을 전부 구비하는 것은 비용 효과 측면에서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교육은 학습 결손이 누적된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사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균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습 결손아들의 잠재능력과 적성을 살려주는 교육의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세정, 2009).

이에 반해 사교육의 부정적 기능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일부를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공교육의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 사교육으로 인한 선행 학습으로 인해 수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려 교실 붕괴의 요인이 된다.

둘째,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한다.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할 시기에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다 보면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는 탈선이나 경쟁에 의한 불안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부터 학력 제일주의라는 가치관을 갖게 되어 폭넓은 사고력을 함양하기가 어려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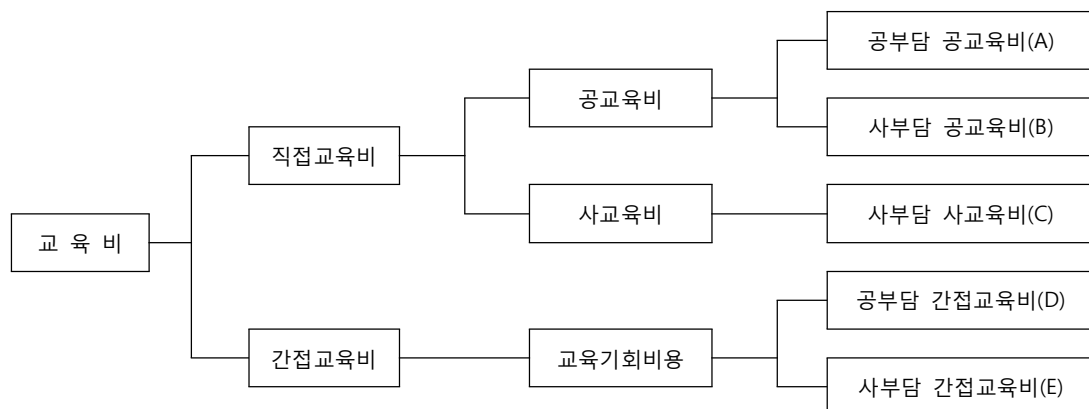
셋째, 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낭비이다. 이미 공교육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이중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국가 재정 차원에서도 낭비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우리사회의 학력주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정표(2001)에 의하면 학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서의 학력이다. 인간자본론적 관점과 기술기능론적

관점으로, 인간자본론적 관점은 교육을 인간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일종의 투자로 간주하고, 기술기능론적 관점에서 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학교 교육에서의 성취, 즉 학력을 통해 지위구조에 편입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선별효과로서의 학력이다. 구조기능주의의 관점에서 교육은 사회적 선발·배치기능을 수행하고, 학력은 교육에서의 성취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셋째, 무용적 가치로서의 학력이다. 이 관점에서 학력은 실질적인 능력과는 관계가 없고 형식적인 자격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즉 생산성과는 관계가 없는 학력에 의해 지위 경쟁이 이루어지므로 학력은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 사교육비

이종재 외(201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교육비 분류 체계는 다음 [그림 II-1]과 같다.



* 출처: 이종재 외(2012)

[그림 II-1] 교육비의 분류 체계

그림에서 A는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공교육비이면서 그 비용을 공적으로 확보된 재정을 통해 부담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교육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 및 학교법인의 전입금 등이 있다. B는 개인이 부담

하되 공공 회계절차를 거치는 교육비를 말하는데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육성회비(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있다. C는 개인이 부담하면서 공공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교육비로서, 교복 및 교과서 대금이나 수학여행비 및 학원 수강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D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간접교육비로 학교에 대한 세금 감면분이나 교육용 재산의 감가상각비 및 교육예산에 대한 대체적 기회의 가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E는 개인이 부담하는 기회비용으로,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학부모가 자녀를 돌보느라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해 포기한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사교육비의 사회적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결과가 있다. 우선, 교육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관여하는 이유는 교육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를 통해 분배의 정의 및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교육의 공적 공급을 통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소득분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는 교육 수혜자가 수혜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므로 소득 분배의 효과가 적다. 한국처럼 임금 수준이 학력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국가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그 개인이 수혜한 교육의 정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박정수, 1997).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것도 가구의 소득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면 교육은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차종민, 2006).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커질수록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낳는다.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은 357조7천억원으로 이 중 교육 예산은 50조 8천억원에 해당한다. 201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18조6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통계청, 2014). 공교육과 사교육의 교육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감안할 때 교육비로 많은 부분 이중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비효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교육비 부담 현황

가.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등학교별 사교육비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단위 : 억원, 만원, %]						
	2013년					
	총사교육비 (억원)	학생1인당 연평균사교육비(만원)	전체학생1인 당월평균사교육비(만원)	참여학생1인 당월평균사교육비(만원)	사교육참여율 (%)	사교육 참여시간 (주당평균)
전체	185,960	286.9	23.9	34.7	68.8	5.9
초등학교	77,375	277.9	23.2	28.3	81.8	6.9
중학교	57,831	320.6	26.7	38.4	69.5	6.5
고등학교	50,754	268.1	22.3	45.4	49.2	3.8
일반고	49,045	315	26.2	47	55.9	4.4

* 출처: 통계청(2014)

<표 II-1>을 보면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교가 26만7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참여 학생만을 비교했을 때는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47만원으로 가장 높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1.8%로 가장 높고 사교육 참여시간은 중학생이 주당 평균 6.9시간으로 가장 많다. 통계청이 분석에 사용한 지표에서 사교육비를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데 사교육비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분류하고 있는 사교육비는 사부담공교육비를 제외시킨 사부

담사교육비만을 의미한다. 사부담공교육비는 공교육비 중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이 포함되는 데 사부담공교육비는 결국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적 교육비 성격도 갖는다. 사부담사교육비는 사교육비에서 사부담공교육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으로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단체활동비, 개인과외비, 입시학원비 등이 포함된다(조평호외, 2004). 하지만 2003년 이후 정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용하는 사교육비의 개념이 바뀌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부터는 사교육비를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자녀의 교육에 지출되는 과외학습비용’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2003년 조사 이후 정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그 이전 조사와는 달리 학교 내의 방과후 교육활동비, 보충수업비를 공식적인 ‘사교육비’에서 제외하였다. 통계청은 2007년 이후 통계조사에서 사교육비를 조사할 때 EBS 교재비와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와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통계청에 의해 조사된 사교육비의 전체 규모는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 실제 규모보다 낮추어져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안선희, 2009).

나. 사교육비 부담 추이

한국무역협회의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이 2.96%로 OECD 평균인 1.11%를 크게 웃도는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4년 2.27일 4년(2010~2013년) 연속 사교육비 총 규모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교육비는 18조 6천억 원 으로 2012년 보다 2.3%(4435억원) 줄었다고 하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통계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은 매년 20만 명 씩 줄어들고 있고, 급성장하는 영유아 사교육시장과 EBS 교재 구입비 등은 빠져있다.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가정이 통계에 포함된 것도 사교육비 수치를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8.8%이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3천원(1.3%) 증가한 수치이다.

초·중·고교생 월평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최근 6년간 추이는 [그림 II

-2]와 같다. 2007년 22만2천원, 2008년 23만3천원, 2009년 24만2천원으로 증가 하였다가 2010년과 2011년 24만원, 2012년 23만6천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 23만9천원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4대 권역 중 서울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권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2만8천원, 중소도시 23만8천원, 광역시 23만3천원, 읍면지역 14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 출처: 통계청(2014)

[그림 II-2]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부담 추이

과목별 사교육비 부담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는 일반 교과 중 영어과목의 비율이 가장 높고, 사교육 참여율에 있어서는 수학과목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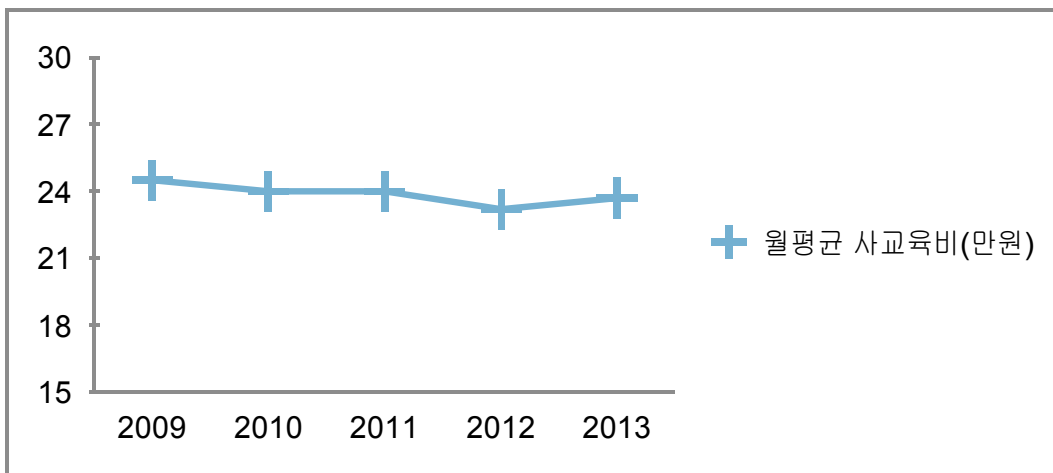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년비(차)		전년비(차)				
사교육비 (만원, %)	23.6	-1.7	23.9	1.3	23.2	26.7	22.3	26.2
- 일반교과	19.3	0.0	19.1	-1.0	15.8	24.5	18.9	22.5
국어	1.7	-10.5	1.6	-5.9	1.4	1.7	1.8	2.2
영어	8.0	-1.2	8.1	1.3	7.8	10.1	6.9	8.1
수학	7.5	7.1	7.4	-1.3	4.5	10.5	8.8	10.5
사회, 과학	1.1	-15.4	0.9	-18.2	0.8	1.4	0.6	0.7
- 예체능, 취미교양	4.2	-8.7	4.7	11.9	7.4	2.2	3.2	3.7
참여율 (%, %p)	69.4	-2.3	68.8	-0.6	81.8	69.5	49.2	55.9
- 일반교과	58.6	-3.0	57.1	-1.5	63.8	64.1	40.8	47.7
국어	22.3	-3.9	19.8	-2.5	26.6	19.8	9.8	11.5
영어	46.3	-2.9	44.0	-2.3	47.8	54.8	28.1	32.9
수학	47.8	-2.4	45.8	-2.0	46.8	57.9	32.8	38.7
사회, 과학	14.0	-3.0	11.5	-2.5	13.7	16.5	3.5	4.2
- 예체능, 취미교양	30.9	-2.2	32.1	1.2	56.2	17.3	10.8	11.5

* 출처 : 통계청(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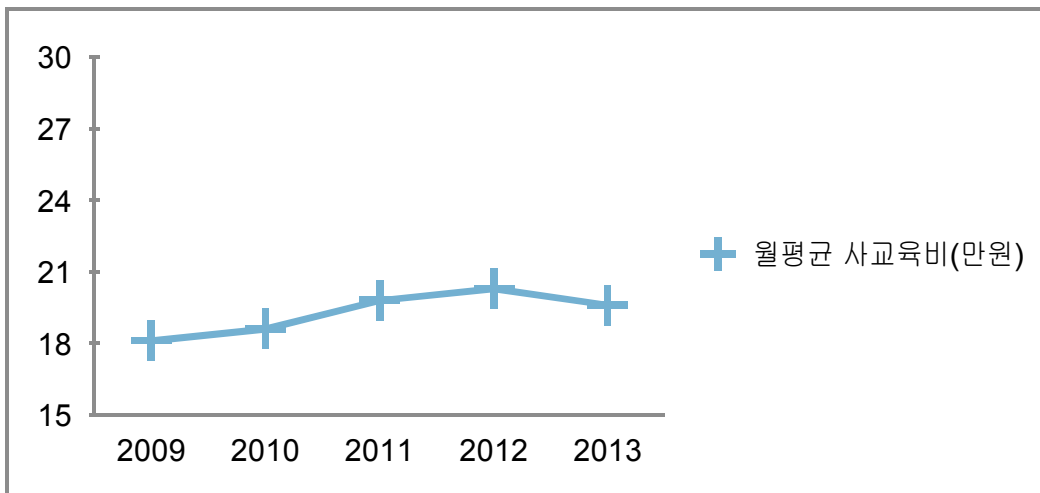
다. 제주지역 사교육비 부담 현황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제주지역은 초·중·고교생들의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초·중·고교생 연간 사교육비는 2009년 219만2천원, 2010년 223만2천원, 2011년 237만6천원, 2012년 243만6천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반면 16개 시도 연간 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2009년 290만4천원, 2010년 288만원, 2011년 288만원, 2012년 283만2천원으로 해마다 감소해 제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청이

발표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 추이를 봐도 나타난다. [그림 II-3]을 보면 전국 평균은 2009년 24만2천원, 2010년 24만원, 2011년 24만원, 2012년 23만6천원, 2013년 23만9천원으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가 2013년 소폭 증가 한 반면, 제주지역은 [그림 II-4]와 같이 2009년 18만1천원, 2010년 18만6천원, 2011년 19만8천원, 2012년 20만3천원, 2013년 19만6천원으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에 와서 소폭으로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적 감소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림 II-3] 전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 추이



[그림 II-4] 제주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 추이

초·중·고등학교별 분석 자료는 통계청이 2014년 2월 27일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중학생이 22만4천원, 초등학생 22만1천원, 고등학생 12만6천원 이었다.

사교육 관련 통계 자료들은 각각 조사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 사교육비가 월평균 53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가 있다. 2013년 12월 23일 국민일보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월평균 사교육비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3000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2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액수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21만6천원, 초등학생 37만7천원, 중학생 42만6천원, 고등학생이 44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비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52.5%가 불만족으로 응답했다. 또 접근성, 수준, 및 질 등 사교육 환경(5점 만점) 역시 2.82점, 2.67점을 기록하는 등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 사교육비 경감 정책

가. 김대중 정부 시기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치 위헌 결정 이후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과외교습에 제한을 받는 현직 교수나 교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인은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사교육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는 공교육의 내실화로 과열과외육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학교 내의 특기·적성교육활동을 강화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학교 내 교육을 지원하고, 과외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과 과외 전면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외교습자의 신고제를 골간으로 한 ‘종합보고서’형태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국회 또한 과외 신고제를 골자로 한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외를 신고제로 함으로써 고액과외 등 사회적 피해를 차단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 계기를 제공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3월에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하여 과외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학생을 위한 정규 수업 외에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을 교사·학생·학부모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보충수업을 부활시키고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입수학능력 시험 대비 사교육, 특목고 입시 대비 사교육의 급격한 증가를 막지 못하였다. 2003년 당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김지경, 2003)에 의하면 월평균 가구당 사교육비가 2000년 14만9천원에서 2001년 17만8천원으로 19.5%가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22만4천원으로 24.9%가 증가하였다(안선희, 2009).

나. 노무현 정부 시기

노무현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사교육비 경감을 가장 중요한 교육 부문 정책 목표로 내걸고 적극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립하였다. 2004년 2월17일에 노무현 정부는 EBS인터넷방송,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수요 공교육 체제 내 흡수, 학교교육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조치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4년 10월 28일에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방과후학교는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받게 한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2006년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2007년에는 일반학교에까지 점차 확대하였다. 노무현정부는 ‘2·17사교육비경감대책’의 시행에도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자 2007년 3월 20일에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수요 공교육 흡수를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새로 추가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참여정부는 수능과 논술을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대학입시전형과 특목고 입시전형에서 학교 학생부(내신) 비중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시기인 2003년에는 사교육비 추정액이 3조6천억원 이었으나 참여정부 후반인 2007년에는 20조 4백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청, 2008).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의 사교육비는 정부 공식적인 통계로 20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9). 이러한 사교육비 증가 실태는 정부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교육학계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한 각종 연구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안선희, 2009).

다. 이명박 정부 시기

이명박정부는 2008년 3월 20일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 형태로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정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직접적인 사교육경감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 중 대표할 수 있는 정책은 영어공교육 강화이다. 사교육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영어사교육으로 연간 3만 명 이상의 숫자가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을 감안하여 영어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취지였다.

두 번째는 고교다양화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논리는 다음과 같다. 획일적인 학교교육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사교육비 증가원인이기 때문에 만약 학생의 관심사, 개인의 학습능력, 적성, 재능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학교들이 생겨난다면 오히려 학교 간 서열은 없어지고 결국 공교육의 경쟁력은 높아져 사교육비 절감과 입시에서의 자율성을 가져온다는 논리다.

세 번째로 대학입시 자율화를 들 수 있다. 국가주도의 수능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줄이고 대학 스스로 학생선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함으로써 학생의 잠재력 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김화경, 2013).

이명박 정부에서도 위와 같이 사교육경감 정책을 추진했으나 앞서 통계자료에서 보여 지듯이 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라. 박근혜 정부 시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세부 실행 과제를 확정하여 발표 하였는데 그 중 전년 18조6천억 원 규모이던 사교육비 부담을 2017년 까지 17조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인성·토론과 체험교육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활성화, 선행교육 과행 개선 등 공교육 정상화, 방과후 교육 강화와 사이버교육 확대, 대학입시 전형 간소화 및 쉬운 수능기조 유지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학교 시험 등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 출제를 금지시키고, 학원 등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의 원인을 대학의 서열화로 보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대책을 내놓았으며,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는 한 학기 동안 체험, 진로학습 활동을 확대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4. 선행연구의 고찰

제주지역 사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로 현상진(2004)과 고정옥(2004), 양진건과 박종필(2004)의 연구가 있다. 현상진(2004)은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월 사교육비는 서귀포시가 남제주군 지역보다 많고 사교육비에 대한 현실 인식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사교육 실시 원인은 ‘학교수업을 받는 데 유리할 것 같아서’가 17.9%로 가장 많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가 16.4%, ‘남들이 다 하는 데 안 시키면 불안할 것 같아서’가 11.9%로 뒤를 이었다. 사교육의 과열 원인으로는 자녀를 성공시키려는 부모의 욕심과 좋은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기대 심리가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학력과 소득에 따른 상관관계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의 학력보다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더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옥(2004)은 제주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중 모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사교육을 시키는 주된 이유로 ‘성적 보충을 위해서’가 44.03%, ‘취미와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서’가 18.16%, ‘자녀 본인이 원해서’가 17.16%로 조사되었다. 둘째,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사교육비를 투자 하는 이유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가 77.83%, ‘사회 전반의 학력 및 학벌위주 때문’이 15.02%, ‘학력 간 임금 격차 때문’이 3.94%를 차지했다. 셋째, 사교육비 해결방안에 대한 학부모의 견해로는 ‘입시전형방법 개선’이 가장 많이 지목되었고, 다음으로 ‘학부모의 의식 변화’, ‘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뒤를 이었다.

양진건 외(2004)의 연구에서는 학부모들이 제주지역에 대한 사교육 현실을 심각한 상태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이 심해지는 원인에 대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를 들고 있었다.

제주지역의 연구는 아니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김혜숙 외(2012)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성적향상을 위해 참여하게 된 사교육은 학생들에게 학업성취의 안전장치와 심리적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교육 참여를 학습 적응을 위한 준비 및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았다. 이는 치열한 진학 경쟁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고보다는 사교육이 기본적인 교육 투자라는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학생들의 지속적인 사교육 참여는 학부모의 추가적인 노력과 기대가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학생들은 또한 주변의 교육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의 전략적 학원 선택 행위에 영향을 받는 ‘학원다니기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는 암묵적 사회 규율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사교육 참여행위를 ‘습관’이라고 부르며 합리적인 교육의 선택 범위를 제한 받고 있었다.

남해진(2009)은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 하였는데, 교사와 학부모의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학부모집단은 교사집단에 비해 사교육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의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에서 벗어나 각자의 역할과 공헌도를 인정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새롭게 마

런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동시에 사교육기관이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차종민(2006)은 문헌연구 및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정부의 학벌주의 사회풍토 개선, 둘째, 소비자 교육운동을 통한 학부모의 의식 전환, 셋째, 공교육 경영의 효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학부모, 학생, 교사 중 한 가지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최대 두 가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살펴보기 위해 세 집단의 인식을 함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제주지역 사교육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나 모집단을 제주시 지역으로 특정하였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교육격차가 크다. 2010년 제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지역 중학생 수학 성적은 7점 가까이, 영어는 4점이나 차이가 난다. 서귀포 지역 고등학교 2012년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은 도 전체가 62.5%인 반면 서귀포는 50%가 안되고, 육지부 대학 진학자는 도 전체가 30.5%인데 반해 서귀포 지역은 6.9%에 그친다. 학원 수를 비교하면 2013년 말 기준 제주시 지역은 873개, 서귀포시는 181개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4년 조사결과 제주시지역이 평균 17만9천원, 서귀포지역이 평균14만7천원이다(양진건외, 2004).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제주시지역 통계치가 제주지역 전체의 교육적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시지역 중학교 중 제주시 동지역 1개교, 동부 읍면지역 1개교, 서부 읍면지역 1개교 총 3개교(한라중, 한림여중, 함덕중)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년 당 1개 반 총 9개 반 학생, 학부모, 각 학교의 교사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생 및 교사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고, 학부모는 학생을 통해 배부 및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604부로, 그 중 응답의 신뢰성이 부족한 85부를 제외한 519부(학생 225부, 학부모 217부, 교사 77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거주지역	제주시 동지역	59(76.6)	104(47.9)	111(49.3)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제주시 읍면지역	18(23.4)	113(52.1)	114(50.7)
성별	남	21(27.3)	29(13.4)	68(30.2)
	여	56(72.7)	188(86.6)	157(69.8)
학년*	중1	-	-	121(53.8)
	중2	-	-	45(20.0)
	중3	-	-	58(25.8)
	무응답	-	-	1(0.4)
연령**	20대	7(9.1)	0(0)	-
	30대	14(18.2)	22(10.1)	-
	40대	20(26.0)	165(76.0)	-
	50대이상	36(46.8)	24(11.1)	-
	기타	0(0)	2(0.9)	-
	무응답	0(0)	4(1.8)	-
결혼여부**	기혼	61(79.2)	210(96.8)	-
	미혼	15(19.5)	3(1.4)	-
	기타	1(1.3)	3(1.4)	-
	무응답	0(0)	1(0.5)	-
학력**	중졸이하	0(0)	9(4.1)	-
	고졸	0(0)	67(30.9)	-
	전문대졸	1(1.3)	29(13.4)	-
	대졸	50(64.9)	88(40.6)	-
	대학원이상	26(33.8)	15(6.9)	-
	무응답	0(0)	9(4.1)	-
	전체	77(100)	217(100)	225(100)

* 학생만 해당

** 교사 및 학부모 해당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지도교수와 교사의 조언을 받아 개발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교사 5명, 학부모 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중복성과 난해한 문항에 대해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영역별 문항 구성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설문지 영역별 문항 구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문항수
'제주지역 사교육'과 관련한 특징적 인식	- 제주지역의 학벌주의(학력주의) 현상 - 제주지역의 사교육 과열 정도 - 제주지역 사교육비 증가 원인 - 제주지역 입시학원 수 증가 원인	10
교사 및 학부모,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 사교육 현황(받는, 받지 않는 이유) - 사교육과 인간성의 관계 - 효과적인 사교육 형태	3
교사 및 학부모, 학생의 '사교육비'에 대한 인식	- 사교육 지출 비용 - 사교육비 부담 정도 - 타지역과 비교한 고/저가 여부 - 최근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 정도	4
교사 및 학부모, 학생의 사교육 '경감방안'에 대한 인식	- 자율학교,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등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 -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예상 효과	2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대상(교사, 학부모, 학생)에 따른 제주지역 사교육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과 사교육에 대한 인식, 사교육비에 대한 인식, 사교육 경감방안에 대한 효과성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χ^2 검증, One Way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제주지역 사교육과 관련한 특징적 사항

1) 제주지역의 학벌주의(학력주의)에 대한 인식

교사 및 학부모, 학생이 인식하는 ‘제주지역의 학벌주의(학력주의)의 심각성 및 입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제주지역 학벌주의 심각성 및 입장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χ^2/p
제주지역 학벌주의 심각성 인식정도	타지역에 비해	34	52	50	136	57.181 /.000***
	심하다	(44.2)	(24.0)	(22.2)	(26.2)	
	타지역과 비슷하다	27	75	43	145	
	(35.1)	(34.6)	(19.1)	(27.9)		
	타지역에 비해	11	43	35	89	
	덜하다	(14.3)	(19.8)	(15.6)	(17.1)	
	잘 모르겠다	5	47	97	149	
	(6.5)	(21.7)	(43.1)	(28.7)		
	합계	77	217	225	519	
	(100.0)	(100.0)	(100.0)	(100.0)		
‘학력주의’나 ‘학벌주의’에 대한 입장	뿌리 뽑아야	22	73	89	184	34.623 /.000***
	한다고 생각	(28.6)	(33.6)	(39.6)	(35.5)	
	완화시켜야 한다고	53	118	88	259	
	생각	(68.8)	(54.4)	(39.1)	(49.9)	
	어느정도는	1	25	48	74	
	장려해야 한다고	(1.3)	(11.5)	(21.3)	(14.3)	
	생각	1	1	0	2	
	크게 확산되어야	(1.3)	(0.5)	(0.0)	(0.4)	
한다고 생각	77	217	225	5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 $p < .001$

<표 IV-1>을 보면,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른 ‘제주지역 학벌주의의 심각성 인식’($\chi^2=57.181$, $p=.000$)과 ‘학벌주의나 학력주의에 대한 입장’($\chi^2=34.623$, $p=.000$)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제주지역 학벌주의의 심각성 인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잘 모르겠다’ 149명(28.7%)으로 가장 많았고, ‘타 지역과 비슷하다’ 145명(27.9%), ‘타 지역에 비해 심하다’ 136명(26.2%), ‘타 지역에 비해 덜하다’ 89명(17.1%)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심하다’가 34명(44.2%)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 지역과 비슷하다’ 27명(35.1%), ‘타 지역에 비해 덜하다’ 11명(14.3%), ‘잘 모르겠다’ 5명(6.5%)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타 지역과 비슷하다’가 75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 지역에 비해 심하다’ 52명(24.0%), ‘잘 모르겠다’ 47명(21.7%), ‘타 지역에 비해 덜하다’ 43명(19.8%)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의 경우 ‘잘 모르겠다’ 97명(43.1%), ‘타 지역에 비해 심하다’ 50명(22.2%), ‘타 지역과 비슷하다’ 43명(19.1%), ‘타 지역에 비해 덜하다’ 35명(15.6%)순으로 나타났다.

교정 표준화 잔차 값을 사용해 집단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학벌주의의 심각성 인식’에서 교사는 제주지역의 학벌주의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심하다’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Z=3.9$, $p<.001$), ‘잘 모르겠다’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는($Z=-4.7$, $p<.001$) 반면 학부모는 ‘타 지역과 비슷하다’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Z=2.9$, $p<.01$). 학생은 ‘잘 모르겠다’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Z=6.3$, $p<.001$), ‘타 지역과 비슷하다’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Z=-3.9$, $p<.001$).

‘학벌주의나 학력주의에 대한 입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 259명(4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 184명(35.5%), ‘어느 정도는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 74명(14.3%), ‘크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 2명(0.4%)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가 53명(68.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 22명(28.6%), ‘어느 정도는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 와 ‘크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각각 1명(1.3%)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118명(%)5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 73명(33.6%), '어느 정도는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 25명(11.5%), '크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 1명(0.5%)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의 경우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 89명(39.6%),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 88명(39.1%), '어느 정도는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 48명(21.3%)순으로 나타났다. 교정 표준화 잔차 값을 사용해 집단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벌주의나 학력주의에 대한 입장'에서 교사는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Z=3.6, p<.001$), '어느 정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에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 ($Z=-3.5, p<.001$). 반면 학생은 '어느 정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Z=4.0, p<.001$),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4.3 p<.001$). 학부모의 경우 유의한 수준의 교정 표준화 잔차값이 없었다.

2) 제주지역의 사교육 과열정도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라 '제주지역의 사교육 과열정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2>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라 '제주지역의 사교육 과열정도'에 대한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7.406, p=.285$).

<표 IV-2> 제주지역의 사교육 과열정도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χ^2/p	
제주지역의 사교육비 과열정도	타시도에 비해 아주 과열	8 (10.4)	18 (8.3)	10 (4.4)	36 (5.8)	7.406 /.285
	타시도에 비해 조금 과열	36 (46.8)	87 (40.1)	107 (47.6)	230 (37.2)	
	타시도에 비해 적음	31 (40.3)	108 (49.8)	101 (44.9)	240 (38.8)	
	타시도에 비해 훨씬 적음	2 (2.6)	4 (1.8)	7 (3.1)	113 (18.3)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619 (100.0)	

3) 제주지역 사교육비 인식

대상에 따라 ‘제주지역의 사교육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3>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라 ‘제주지역의 사교육비’인식에 대한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2.829$, $p=.830$).

<표 IV-3> 제주지역 사교육비 인식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χ^2/p	
사교육비 비용인식	아주 비쌌	2 (2.6)	7 (3.2)	8 (3.6)	17 (3.3)	2.829 /.830
	비싼 편임	35 (45.5)	94 (43.3)	90 (40.0)	219 (42.2)	
	저렴한 편임	39 (50.6)	114 (52.5)	121 (53.8)	274 (52.8)	
	아주 저렴한	1 (1.3)	2 (0.9)	6 (2.7)	9 (1.7)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4) 제주지역 사교육비 인상에 대한 인식정도

대상에 따른 ‘제주지역 사교육비 인상에 대한 인식정도’의 분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제주지역 사교육비 인상에 대한 인식정도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χ^2/p
제주지역 사교육비 인상에 대한 인식정도	아주 잘 알고 있음 (20.8)	28 (12.9)	16 (7.1)	60 (11.6)	49.834 /.000***
	조금 알고 있음 (50.6)	121 (55.8)	83 (36.9)	243 (46.8)	
	알지 못함 (16.9)	62 (28.6)	89 (39.6)	164 (31.6)	
	전혀 알지 못함 (11.7)	6 (2.8)	37 (16.4)	52 (10.0)	
	합계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 $p < .001$

<표 IV-4>를 보면,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른 ‘제주지역 사교육비 인상에 대한 인식정도’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9.834$, $p=.000$).

교정 표준화 잔차 값을 사용해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사는 사교육비 인상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Z=2.7$, $p<.01$), ‘알지 못함’에 가장 덜 분포되어 있는($Z=-3.0$, $p<.001$) 반면 학부모는 ‘조금 알고 있다’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Z=3.5$, $p<.001$), ‘전혀 알지 못함’에 가장 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4.7$, $p<.001$). 학생은 ‘전혀 알지 못함’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Z=4.3$, $p<.001$), ‘조금 알고 있다’에 가장 덜 분포되어 있었다($Z=-4.0$, $p<.001$).

5) 제주지역 사교육비 증가 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생각하는 ‘제주지역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조사한 결과, <표 IV-5>와 같다.

<표 IV-5> 제주지역 사교육비 증가 원인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제주지역의 높은 교육열	49 (59.8)	106 (46.9)	125 (53.0)	280 (51.5)
타시도에 비해 소자본으로 학원 설립가능	9 (11.0)	26 (11.5)	19 (8.1)	54 (9.9)
제주지역 사교육비 증가 원인 (중복응답)	8 (9.8)	33 (14.6)	24 (10.2)	65 (11.9)
고학력 일자리 부족	9 (11.0)	31 (13.7)	20 (8.5)	60 (11.0)
제주도 유입 인구 증가	7 (8.5)	30 (13.3)	48 (20.3)	85 (15.6)
기타	82 (100.0)	226 (100.0)	236 (100.0)	544 (100.0)
전체				

<표 IV-5>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의 51.5%(280명)가 제주지역의 높은 교육열을 ‘제주지역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뽑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기타 15.6%(85명), 고학력 일자리 부족 11.9%(65명), 제주도 유입 인구 증가 11.0%(60명), 타시도에 비해 소자본으로 학원 설립 가능 9.9%(54명)순으로 나타났다. 대상 별로 살펴보면, 교사의 경우 응답자의 59.8%(49명)가 제주의 높은 교육열을 ‘제주지역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뽑았으며, 다음으로 제주도 유입 인구 증가 및 타시도에 비해 소자본으로 학원 설립가능이 각각 11.0%(9명), 고학력 일자리 부족 9.8%(8명), 기타 8.5%(7명)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제주의 높은 교육열이 46.9%(106명)로 가장 높았으며, 고학력 일자리 부족 14.6%(33명), 제주도 유입 인구 증가 13.7%(31명), 기타 13.3%(30명), 타시도에 비해 소자본으로 학원 설립가능 11.5%(26명)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제주의 높은 교육열 53.0%(125명)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20.3%(48명), 고학력 일자리 부족 10.2%(24명), 제주도 유입 인구 증가 8.5%(20명), 타시도에 비해 소자본으로 학원 설립가능 8.1%(19명)순으로 나타났다.

6) 제주지역 입시학원 수 증가 원인

대상에 따른 ‘제주지역의 입시학원 수 증가 원인’의 분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제주지역 입시학원 수 증가 원인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χ^2/p
제주지역의 높은 교육열	49 (63.6)	106 (48.8)	126 (56.0)	281 (54.1)	19.341 /.013*
타시도에 비해 소자본으로 학원 설립 가능	8 (10.4)	26 (12.0)	18 (8.0)	52 (10.0)	
제주지역 입학원 수 증가 원인 고학력 일자리 부족	8 (10.4)	29 (13.4)	19 (8.4)	56 (10.8)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	5 (6.5)	27 (12.4)	14 (6.2)	46 (8.9)	
기타	7 (9.1)	29 (13.4)	48 (21.3)	84 (16.2)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 $p < .05$

<표 IV-6>를 보면,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른 ‘제주지역 입시학원 수 증가 원인’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9.341$, $p=.013$).

교정 표준화 잔차 값을 사용해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부모는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Z=2.4$, $p<.01$), ‘제주지역의 높은 교육열’에 가장 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2.1$, $p<.01$). 학생은 ‘기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Z=2.8$, $p<.01$). 교사의 경우 유의한 수준의 교정표준화 잔차값이 없었다.

7)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여부

대상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여부’의 분포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7>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여부'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2.514$, $p=.284$).

<표 IV-7>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여부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χ^2/p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여부	사교육을 받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	37 (48.1)	118 (54.4)	106 (47.1)	261 (50.3)	2.514 /.284
	사교육을 받지 않고 적성과 성적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	40 (51.9)	99 (45.6)	119 (52.9)	258 (49.7)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8) 방학기간 원하는 참여 프로그램

대상에 따른 '방학기간 원하는 참여 프로그램'의 분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방학기간 원하는 참여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χ^2/p	
방학기간 원하는 참여 프로그램	교과목	10 (13.0)	102 (47.0)	93 (41.3)	205 (39.5)	28.080 /.000***
	보충학습	67 (87.0)	115 (53.0)	132 (58.7)	314 (60.5)	
	자연 생태체험학습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 $p<.001$

<표 IV-8>를 보면,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른 ‘방학기간 원하는 참여 프로그램’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8.080$, $p=.000$).

교정 표준화 잔차 값을 사용해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과목 보충학습’을 원한다는 응답에 학부모가 가장 많이 분포($Z=3.0$, $p<.001$)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사가 가장 덜 분포되어 있었다($Z=-5.2$, $p<.001$). ‘자연 생태학습’에서는 교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Z=5.2$, $p<.001$), 학부모가 가장 덜 분포되어 있었다($Z=-3.0$, $p<.001$).

9) 타인과의 성적비교에 대한 인식

대상에 따른 ‘타인과의 성적비교에 대한 인식’의 분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9>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른 ‘타인과의 성적비교에 대한 인식’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2.072$, $p=.355$).

<표 IV-9> 타인과의 성적 비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χ^2/p	
성적에 대한 비교	친인척 자녀보다 성적이 나빠도 상관없다	43 (55.8)	101 (46.5)	107 (47.6)	251 (48.4)	2.072 /355
	친인척 자녀보다 성적이 좋아야 한다	34 (44.2)	116 (53.5)	118 (52.4)	268 (51.6)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10)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

대상에 따른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의 분포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χ^2/p	
미래를 위해 우선 갖춰야 할 요소	학력	6 (7.8)	29 (13.4)	51 (22.7)	86 (16.6)	35.823 /.000***
	재산	1 (1.3)	4 (1.8)	9 (4.0)	14 (2.7)	
	성품	42 (54.5)	77 (35.5)	50 (22.2)	169 (32.6)	
	대인관계능력	19 (24.7)	59 (27.2)	67 (29.8)	145 (27.9)	
	건강	9 (11.7)	48 (22.1)	48 (21.3)	105 (20.2)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 $p < .001$

<표 IV-10>를 보면,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른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5.823, p=.000$).

교정 표준화 잔차 값을 사용해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사는 ‘성품’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Z=4.5, p<.001$), ‘학력’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Z=-2.2, p<.01$). 반면 학생은 ‘학력’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Z=3.3, p<.001$), ‘성품’에 가장 덜 분포되어 있었다($Z=-4.4, p<.001$). 학부모의 경우 유의한 수준의 교정표준화 잔차값이 없었다.

2. 교사, 학부모,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교사, 학부모,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표 IV-11>, <표 IV-12>와 같다.

<표 IV-11>은 사교육 여부, 사교육 분야, 사교육을 받는 이유,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교육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4.8%(388명)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5.2%(131명)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응답자 중 61%(47명), 학부모 응답자 중 73.3%(159명)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생 응답자 중 80.9%(182명)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388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주요과목 53.9%(289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국어 31.0%(166명), 예체능 12.1%(65명), 기타 3.0%(16명)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교사는 외국어가 40.4%(23명)으로 가장 높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주요과목이 각각 55.7%(122명), 55.5%(14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388명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받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공교육만으로 부족해서 31.9%(16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22.9%(117명), 취미나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 17.4%(89명), 다른 학생보다 월등히 잘하기 위해 12.9%(66명), 남들이 다 하니깐 안하면 불안해서 8.4%(43명)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교사는 공교육만으로 부족해서와 취미나 특기를 살리기 위해가 각각 26.4%(14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학생보다 월등히 잘하기 위해 22.6%(12명)순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공교육만으로 부족해서 33.3%(69명)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25.1%(5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공교육만으로 부족해서 32.0%(80명), 학교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23.6%(59명)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131명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원하지 않아서 38.2%(50명)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므로 19.8%(26명), 기타 16.8%(22명), 비용이 부담 되어서 14.5%(19명),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6.9%(9명), 믿고 갈만한 학원 등이 없어서 3.8%(5명) 순으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교사 40%(12명), 학부모 36.2%(21명), 학생 39.5%(1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 사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사교육 여부	받고 있다.	47 (61.0)	159 (73.3)	182 (80.9)	388 (74.8)
	받지 않는다.	30 (39.0)	58 (26.7)	43 (19.1)	131 (25.2)
	전체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사교육 분야 (중복응 답)	주요과목	21 (36.8)	122 (55.7)	146 (55.5)	289 (53.9)
	예체능	12 (21.1)	24 (11.0)	29 (11.0)	65 (12.1)
	외국어	23 (40.4)	67 (30.6)	79 (30.0)	166 (31.0)
	기타	1 (1.8)	6 (2.7)	9 (3.4)	16 (3.0)
	전체	57 (100.0)	219 (100.0)	263 (100.0)	536 (100.0)
사교육 받는 이유 (중복응 답)	공교육만으로 부족해서	14 (26.4)	69 (33.3)	80 (32.0)	163 (31.9)
	학교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6 (11.3)	52 (25.1)	59 (23.6)	117 (22.9)
	다른 학생보다 월등히 잘하기 위해	12 (22.6)	23 (11.1)	30 (12.0)	66 (12.9)
	학원을 안다니면 놀러다닐까봐	2 (3.8)	13 (6.3)	18 (7.2)	33 (6.5)
	취미나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	14 (26.4)	30 (14.5)	45 (18.0)	89 (17.4)
	남들이 다 하니깐 안하면 불안해서	5 (9.4)	20 (9.7)	18 (7.2)	43 (8.4)
	전체	53 (100.0)	207 (100.0)	250 (100.0)	511 (100.0)
사교육 받지 않는 이유	원하지 않아서	12 (40.0)	21 (36.2)	17 (39.5)	50 (38.2)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므로	8 (26.7)	9 (15.5)	9 (20.9)	26 (19.8)
	비용이 부담 되어서	3 (10.0)	11 (19.0)	5 (11.6)	19 (14.5)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1 (3.3)	3 (5.2)	5 (11.6)	9 (6.9)
	믿고 갈만한 학원 등이 없어서	1 (3.3)	3 (5.2)	1 (2.3)	5 (3.8)
	기타	5 (16.7)	11 (19.0)	6 (14.0)	22 (16.8)
	전체	30 (100.0)	58 (100.0)	43 (100.0)	131 (100.0)

<표 IV-12>는 대상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사교육 형태’의 분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IV-12> 사교육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χ^2/p			
과도한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	올바른 인간성 및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줌	2 (2.6)	31 (14.3)	34 (15.1)	67 (12.9)	77.024 /.000***		
	별 인과관계 없음	13 (16.9)	56 (25.8)	30 (13.3)	99 (19.1)			
	방해가 되지만 그리 심각하지는 않음	21 (27.3)	54 (24.9)	27 (12.0)	102 (19.7)			
	바람직한 형성에 악영향	36 (46.8)	37 (17.1)	52 (23.1)	125 (24.1)			
	잘 모르겠음	5 (6.5)	39 (18.0)	82 (36.4)	126 (24.3)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효과적인 사교육 형태	학원	6 (7.8)	66 (30.4)	81 (36.0)		153 (29.5)	36.289
		개인과의	26 (33.8)	74 (34.1)	78 (34.7)		178 (34.3)	
		그룹과의	21 (27.3)	41 (18.9)	22 (9.8)		84 (16.2)	
		인터넷 강의	10 (13.0)	21 (9.7)	20 (8.9)		51 (9.8)	
기타		14 (18.2)	15 (6.9)	24 (10.7)	53 (10.2)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 $p < .001$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77.024$, $p=.000$). 교정 표준화 잔차 값을 사용해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사는 ‘바람직한 형성에 악영향’($Z=5.0$, $p<.00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올바른 인간성 및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줌’(Z=-2.9, p<.01)과 ‘잘 모르겠음’(Z=-3.9, p<.001)에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Z=-2.2, p<.01). 반면 학부모는 ‘별 인관관계 없음’(Z=3.3, p<.001)과 ‘방해가 되지만 그리 심각하지는 않음’(Z=2.5, p<.01)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바람직한 형성에 악영향’(Z=-3.2, p<.001)와 ‘잘 모르겠다’(Z=-2.8, p<.01)에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 학생은 ‘잘 모르겠다’(Z=5.7, p<.00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별 인관관계 없음’(Z=-3.8, p<.001)과 ‘방해가 되지만 그리 심각하지는 않음’(Z=-2.9, p<.01)에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른 ‘효과적인 사교육 형태’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6.289$, p=.000). 교정 표준화 잔차 값을 사용해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사는 ‘그룹과외’(Z=2.9, p<.01), ‘기타’(Z=2.5, p<.01)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학원’(Z=-4.5, p<.001)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 학부모는 ‘기타’(Z=-2.1, p<.01)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 학생은 ‘학원’(Z=2.9, p<.0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그룹과외’(Z=-3.5, p<.001)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

3. 교사, 학부모, 학생의 사교육비에 대한 인식

<표 IV-13>은 대상에 따른 ‘사교육비에 지출 비용’과 ‘사교육비 부담감’, ‘최근 3년간 사교육비 증가정도’의 분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 Way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IV-13> 사교육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χ^2/p	
사교육비지출 비용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2 (28.6)	77 (35.5)	76 (33.8)	175 (33.7)	8.650 /.373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1 (40.3)	65 (30.0)	63 (28.0)	159 (30.6)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6 (7.8)	30 (13.8)	39 (17.3)	75 (14.5)	
	70만원 이상	6 (7.8)	17 (7.8)	13 (5.8)	36 (6.9)	
	기타	12 (15.6)	28 (12.9)	34 (15.1)	74 (14.3)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사교육비 부담감	많이 부담됨	14 (18.2)	28 (12.9)	20 (8.9)	62 (11.9)	17.252 /.008**
	다소 부담됨	45 (58.4)	115 (53.0)	103 (45.8)	263 (50.7)	
	부담되지 않음	11 (14.3)	58 (26.7)	72 (32.0)	141 (27.2)	
	전혀 부담 없음	7 (9.1)	16 (7.4)	30 (13.3)	53 (10.2)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최근 3년간 사교육비 증가정도	아주 증가함	8 (10.4)	10 (4.6)	14 (6.2)	32 (6.2)	4.254 /.642
	조금 증가함	52 (67.5)	159 (73.3)	156 (69.3)	367 (70.7)	
	감소함	12 (15.6)	38 (17.5)	42 (18.7)	92 (17.7)	
	아주 감소함	5 (6.5)	10 (4.6)	13 (5.8)	28 (5.4)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 $p < .01$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감'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chi^2=17.252$, $p=.008$), ‘사교육비 지출 비용’($\chi^2=8.650$, $p=.373$)과 ‘최근 3년간 사교육비 증가정도’($\chi^2=4.254$, $p=.642$)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교사의 평균 2.14, 학부모의 평균 2.29, 학생의 평균 2.50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901$, $p=.001$).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Dunnett T3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사가 학생보다, 학부모가 학생보다 사교육비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사, 학부모, 학생의 사교육 경감방안 효과성 인식

<표 IV-14>은 대상에 따라 사교육 경감방안의 효과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른 ‘자율형학교 및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등의 확대’($\chi^2=14.628$, $p=.023$), ‘제주지역 공교육 강화’($\chi^2=21.061$, $p=.002$)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chi^2=5.034$, $p=.539$), ‘학원, 개인과외 등의 규제 강화 및 사교육 시장 억제정책’($\chi^2=11.310$, $p=.079$)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교정 표준화 잔차 값을 사용해 ‘자율형학교 및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등의 확대’의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생은 ‘효과가 큼’($Z=2.9$, $p<.0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효과가 거의 없음’($Z=-2.5$, $p<.01$)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의 경우 유의한 수준의 교정표준화 잔차 값이 없었다.

교정 표준화 잔차 값을 사용해 ‘제주지역 공교육 강화’의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사는 ‘효과가 매우 큼’($Z=3.4$, $p<.00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학부모는 ‘다소 효과가 있음’($Z=2.0$, $p<.0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학생은 ‘효과가 거의 없음’($Z=2.4$, $p<.0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효과가 매우

큼'(Z=-2.7, p<.01)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사교육 경감방안 효과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교사	학부모	학생	전체	χ^2/p	
자율형학교 및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등의 확대	효과가 거의 없음	24 (31.2)	62 (28.6)	44 (19.6)	130 (25.0)	14.628 /.023*
	다소 효과가 있음	44 (57.1)	127 (58.5)	127 (56.4)	298 (57.4)	
	효과가 큼	7 (9.1)	23 (10.6)	43 (19.1)	73 (14.1)	
	효과가 매우 큼	2 (2.6)	5 (2.3)	11 (4.9)	18 (3.5)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장기적 관점에서 '철학'등 인문학 정규과목 도입	효과가 거의 없음	36 (46.8)	65 (30.0)	73 (32.4)	174 (33.5)	21.793 /.001***
	다소 효과가 있음	27 (35.1)	109 (50.2)	121 (53.8)	257 (49.5)	
	효과가 큼	6 (7.8)	33 (15.2)	27 (12.0)	66 (12.7)	
	효과가 매우 큼	8 (10.4)	10 (4.6)	4 (1.8)	22 (4.2)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청년층 창업, 노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연금(기금)제도 도입	효과가 거의 없음	26 (33.8)	49 (22.6)	39 (17.3)	114 (22.0)	16.583 /.011*
	다소 효과가 있음	31 (40.3)	119 (54.8)	109 (48.4)	259 (49.9)	
	효과가 큼	14 (18.2)	38 (17.5)	63 (28.0)	115 (22.2)	
	효과가 매우 큼	6 (7.8)	11 (5.1)	14 (6.2)	31 (6.0)	
	합계	77 (100.0)	217 (100.0)	225 (100.0)	519 (100.0)	

*p<.05, ***p<.001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사교육에 대한 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제주지역 사교육에 대한 발전적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었다. 제주도 중학교 교사 77명과 학생 225명, 학부모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주지역 학벌주의의 심각성 인식’에서 교사는 제주지역의 학벌주의가 ‘타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Z=3.9, p<.001$), ‘잘 모르겠다’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는($Z=-4.7, p<.001$) 반면 학부모는 ‘타지역과 비슷하다’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Z=2.9, p<.01$). 학생은 ‘잘 모르겠다’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Z=6.3, p<.001$), ‘타지역과 비슷하다’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Z=-3.9, p<.001$).

‘학벌주의나 학력주의에 대한 입장’에서 교사는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Z=3.6, p<.001$), ‘어느정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에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Z=-3.5, p<.001$). 반면 학생은 ‘어느정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Z=4.0, p<.001$),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유의한 수준의 교정표준화 잔차값이 없었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교육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4.8%(388명)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5.2%(131명)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응답자 중 61%(47명), 학부모 응답자 중 73.3%(159명)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생 응답자 중 80.9%(182명)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388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주요과목 53.7%(29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국어 30.4%(166명), 예체능 11.9%(65명), 기타 4%(22명)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주요과목과 외국어가 각각 38.3%(23명)으로 가장 높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주요과목이 각각 54.9%(123명), 55.5%(14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388명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받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공교육만으로 부족해서 32.2%(165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22.8(117명), 취미나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 17.3%(89명), 다른 학생보다 월등히 잘하기 위해 12.9%(66명), 남들이 다 하니깐 안하면 불안해서 8.4%(43명)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공교육만으로 부족해서 27.3%(15명)로 가장 높았으며, 취미나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 25.5%(14명), 다른 학생보다 월등히 잘하기 위해 23.6%(13명)순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공교육만으로 부족해서 33.3%(69명)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25.1%(5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공교육만으로 부족해서 32.2%(81명), 학교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23.5%(5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감'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chi^2=17.252$, $p=.008$), '사교육비 지출 비용'($\chi^2=8.650$, $p=.373$)과 '최근 3년간 사교육비 증가정도'($\chi^2=4.254$, $p=.642$)의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교육비 부담감'의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사는 '부담되지 않음'($Z=-2.8$, $p<.01$)에 적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학생은 '부담되지 않음'($Z=2.2$, $p<.01$), '전혀 부담 없음'($Z=2.1$, $p<.01$)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다소 부담됨'($Z=-2.0$, $p<.01$)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 학부모의 경우 유의한 수준의 교정표준화 잔차값이 없었다.

연구문제 4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으로 교사 및 학부모, 학생에 따른 ‘자유형학교 및 사교육 절감형 창의 경영학교 등의 확대’의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생은 ‘효과가 큼’($Z=2.9, p<.0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효과가 거의 없음’($Z=-2.5, p<.01$)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었다.

‘제주지역 공교육 강화’의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사는 ‘효과가 매우 큼’($Z=3.4, p<.00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학부모는 ‘다소 효과가 있음’($Z=2.0, p<.0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학생은 ‘효과가 거의 없음’($Z=2.4, p<.0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효과가 매우 큼’($Z=-2.7, p<.01$)에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본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선행 연구와 비교 할때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제주지역 사교육에 대한 특징적 인식으로 ‘제주지역 학벌주의의 심각성 인식’에서는 교사가 학부모 보다 ‘제주지역 학벌주의가 타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주의나 학력주의에 대한 입장’에서 교사는 ‘완화시켜야 한다’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나 학부모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본 결과에 나타난 학부모의 인식은 현상진(2004)의 연구에서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한 현실 인식이 심각하다고 분석한 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 수행된 연도가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동안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을 학부모가 교사 보다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사교육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4.8%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집단은 주요과목, 외국어, 예체능 순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공교육만으로 부족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취미나 특기를 살리기 위해’로 나타났다. 고정옥(200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교육을 받는 원인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가 가장 많았으며, ‘취미나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 ‘자녀 본인이 원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양진건 외(2004)의 연구에서 학교 교육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학부모 및 학생 보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사교육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정옥과 양진건과 박종필의 연구에서 10년이 흐른 현재는 2004년 보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기대가 아직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사교육비’에 대한 분석 결과로 교사나 학부모는 ‘조금 부담이 된다’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학생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에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이것은 학생이 실제 사교육비 지출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으로 ‘제주지역 공교육 강화’의 차이를 보면 교사는 ‘효과가 매우 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학부모는 ‘다소 효과가 있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 학생은 ‘효과가 거의 없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고정옥(2004)의 연구에 의하면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입시방법의 개선, 학부모의 의식 변화, 학교교육의 내실화, 방과후학교 교육의 내실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보다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공교육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율학교 및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 학교 등의 확대’에 있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다소 효과가 있음’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철학 등 인문학 정규과목 도입’은 학생, 학부모는 다소 효과가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교사는 거의 효과가 없음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청년층 창업, 노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

자치도 특별 연금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다소 효과가 있음'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나 '학원, 개인과의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사교육시장 억제 정책'에 관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다소 효과가 있음'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방법들이나 설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교육 경감방안들에 대해 아주 효과가 있기 보다는 조금 밖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다소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요약을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학벌주의에 대한 인식으로 교사와 학부모는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하거나 타 지역과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교육 과열 정도는 타 지역에 비해 조금 과열되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학력 향상 욕구나 학벌주의가 타 지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과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사교육을 받고 있는 집단의 경우 '공교육만으로 부족해서'라는 인식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교사 집단에게서 까지 '공교육만으로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것은 공교육의 부실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일부의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방안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제주지역 공교육의 강화'를 들고 있다는 것 또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사교육비에 대해 '다소 부담됨'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4년과 비교하여 부담감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함을 알 수 있다. 교육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교육 정책에 달려 있다. 사교육 관

런 대책이 방향을 전환하여 무조건 억제만 할 것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여러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관해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의 경감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하고 또한 그만큼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쉽게 나오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학력 향상을 통해 자녀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의식에 기인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나 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중학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서귀포나 제주도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추가적인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 사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나, 교육청 관계자나 교육의원, 교수 등 다른 교육 전문가의 입장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연구 결과를 제주지역 전체 사교육과 관련한 당사자의 견해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청과 교육관계학과 교수, 교육의원 등 교육 전문가 집단의 견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조사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에 이중으로 투자되고 있는 낭비적인 사교육비 지출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및 대도시와 비교하여 결코 뒤떨어진다 고 볼 수 없는 제주지역의 교육열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향후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미나(2011). 사교육에 대한 문화와 문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정옥(2004).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논문.
- 고형일, 이두휴(200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교육사회학연구, 12(1), 1-42.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보도자료(2012.2.17.).
- 국회도서관(2012).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현황 보고서(2012.10.24.). 국회의원 이상민 요구 자료.
- 김미경(2002). 중등학교 사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권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호(2004). 김해지역 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경감방안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경(2003).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김혜숙, 한대동, 남현숙(2012)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 251-278.
- 김화경(201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3대 교육정책 비교.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해진(2009). 초등교사와 학부모의 공·사교육에 관한 인식 비교.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옥(2004).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정(2009). 사교육 실태 및 의식 조사 분석: 교사 학부모와 일반 학부모 의식 비교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수(1997). 한국사교육의 확장과 교육기회의 형평.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백혜숙(2007). 인문계 고등학생의 사교육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 의정부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희(2009). 사교육비 경감정책 평가연구: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

- 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윤정(2010). 사교육 경감 정책 비교 연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건, 박종필(2004). 제주도의 사교육비 현황, 문제점 및 경감방안 연구
- 이정표(2011). 국민의 학력관에 나타나는 학력의 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 교육
사회학연구, 11(1). 55-75
- 이종재, 이차영, 김용, 송경오(2012). 한국교육행정론. 교육과학사.
- 임미순(2008). 중학교 교과별 사교육 실태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우찬(2010). 학벌주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주시교육지원청(2012).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계획 알림. 제주시교육지원청 내
부문서.
- 제주시교육지원청(2013). “2013년 3월 31일 현재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록 현
황” 홈페이지 공개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2). 2011 제주여성가족통계. 제주특별자치도.
- 조평호, 김기태(2004). 교육재정과 학교시설. 교육과학사.
- 차종민(2006). 사교육비 지출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통계청(2011). 2011년 맞벌이 가구 및 경력 단절여성 통계 보도자료(2011.12.13.)
- 현상진(2004). 제주도의 사교육 실태 조사 및 분석: 제주도서귀포교육청 산하 초
등학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고 사이트>

제주시교육지원청(www.jjse.go.kr)

【ABSTRACT】

Perception on Private Education in Jeju: Focused
Middle School

Lee, Eun Ju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In 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ivate education in Jeju and investigate recognition over private education expenses so as to reduce private education expenses or use them more efficiently afterwards. To attain the goal, the researcher formulated four study questions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recognition over private education in Jeju?

Second, how do the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recognize private education?

Third, how do the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recognize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urth, how do the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recognize ways to reduce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to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t middle schools located in Jeju. Collected questionnaire sheets included 225 from students, 217 from parents, and 77 from teachers, and they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let's see the characteristic recognition over private education in Jeju. About the seriousness of diplomaism in Jeju recognized by the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teachers regarded it to be much more serious than in other regions while parents thought it to be similar to others. Meanwhile, most of the students answered they had no idea about it. About the reason why academies for college entrance keep increasing in Jeju, both teachers and parents went with great enthusiasm for education in Jeju. As the program to participate in during a vacation, most of the teachers chose 'eco learning' whereas parents went with 'subject remedial education' the most. Although both teachers and parents recognized great enthusiasm for education in Jeju, parents showed higher passion for 'subject remedial education' than teachers regarding their child's education. About the element to be equipped with first for a child's future, both teachers and parents went with 'personality' the most whereas students chose 'academic career' the most.

Second, let's see the recognition over private education. About the reason why they choose private education, most of them think 'public education is not enough', and the second most responses go to 'keep pace with the progress at schoo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education and righteous character cultivation, most of the teachers think 'it interferes with it but not that serious' while parents chose 'there is not much correlation between them' the most. This means that parents are less negative about private education than teachers.

Third, let's see the recognition over private education expenses. About the monthly private education expenses,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all chose 'more than 100,000 won and less than 300,000 won' the most. About the degree of a burden they feel, most of them went with 'it is rather burdensome' respectively.

Fourth, about the recognition over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reduce private education expenses, 'enhancing public education in Jeju' was selected the most.

【부록 1】

제주지역 사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설문은 「제주지역 사교육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을 위한 것이며, 제주지역 사교육실태 및 사교육 증가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저의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내용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절대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어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료는 연구가 끝나는 2014년 8월 30까지 소각 처리되어 폐기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의 연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 이 인 회

석사과정 : 이 은 주

연 락 처 : 010-9478-2933

이 메 일 : eun8312@naver.com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주지역

-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2. 성별

- ① 남 ② 여

3. 구분

- ① 교사 ② 학부모 ③ 학생

4. 현재 학년(학생 응답)

- ① 중1 ② 중2 ③ 중3

5. 연령(교사 및 학부모 응답)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⑤ 기타

6. 결혼여부(교사 및 학부모 응답)

-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7. 학력(교사 및 학부모 응답)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8. 자녀의 현재 학력(교사 및 학부모 응답)

- ① 유치원 이하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대학생 이상 ⑥ 자녀 없음(다음 문항부터 자녀가 있음을 가정하여 응답해주
세요)

다음은 사교육에 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계신 내용과 가까운 번호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자녀가(재학생 본인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성적이 안 된다면 사교육을 받게 해서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겠습니까, 성적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 시키겠습니까?

- ① 사교육을 받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
- ② 사교육을 받지 않고 적성과 성적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

10. 자녀가(재학생 본인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어떤 분야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주요과목 ② 예체능 ③ 외국어 ④ 기타

11. 자녀가(재학생 본인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공교육만으로 부족해서 ②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 ③ 다른 학생보다 월등히 잘하기 위해 ④ 학원을 안다니면 놀러다닐까봐
- ⑤ 취미나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 ⑥ 남들이 다 하니깐 안하면 불안해서

12. 자녀가(재학생 본인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원하지 않아서 ②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므로
- ③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④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 ⑤ 믿고 갈만한 학원 등이 없어서 ⑥ 기타

13. 과도한 사교육이 학생의 바람직한 인간성,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 ① 올바른 인간성 및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줌
- ② 별 인과관계가 없음
- ③ 방해가 되지만 그리 심각하지는 않음
- ④ 바람직한 형성에 악영향을 끼침
- ⑤ 잘 모르겠음

14. 자녀의(재학생 본인이)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력 ② 재산 ③ 성품 ④ 대인관계 능력 ⑤ 건강

15. 만약 학교에서 방학 동안 교과목 보충학습과 자연 생태체험학습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시키겠습니까?(또는 재학생 본인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 ① 교과목 보충학습 ② 자연 생태체험학습

16. 제주지역의 학벌주의(학력주의) 현상이 타지역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 ① 타지역에 비해 심하다 ② 타지역과 비슷하다
③ 타지역에 비해 덜하다 ④ 잘 모르겠다

17. 자녀의(재학생 본인이) 성적에 대해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 ① 내 자녀가(내가) 친인척 자녀보다 성적이 나빠도 상관없다
② 내 자녀는(나는) 친인척 자녀보다 성적이 좋아야 한다

18. 현재 귀 자녀의(본인의) 사교육비용은 총 얼마입니까?(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 합계)

- ①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②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③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④ 70만원 이상
⑤ 기타

19. 귀 자녀의(재학생 본인의) 사교육비로 인해 부담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많이 부담됨 ② 다소 부담됨 ③ 부담되지 않음 ④ 전혀 부담 없음

20. 제주지역 사교육비가 타 지역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비쌌 ② 비싼 편임 ③ 저렴한 편 ④ 아주 저렴한

21. 제주지역의 사교육은 적절한 편이라고 보십니까?

- ① 타시도에 비해 아주 과열 ② 타시도보다 조금 과열되어 있음
③ 타시도에 비해 적은 편 ④ 타시도 보다 훨씬 적음

다음은 제주지역 사교육비 증가 현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계신 내용과 가까운 번호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귀하 자녀의(재학생 본인의) 사교육비는 최근 3년간 증가하였습니까?

- ① 아주 증가함 ② 조금 증가함 ③ 감소함 ④ 아주 감소함

23. 제주지역의 사교육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조금 알고 있음 ③ 알지 못함 ④ 전혀 알지 못함

24. 증가했다면 얼마나 증가하였습니까?

-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③ 30만원 이상 ④ 기타

25. 귀하의 자녀는(재학생 본인은) 현재 어떤 형태의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① 학원 ② 개인과의 ③ 그룹과의 ④ 인터넷강의 ⑤ 기타

26.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원 ② 개인과의 ③ 그룹과의 ④ 인터넷강의 ⑤ 기타

27. 타시도 평균보다 제주지역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지역사회이므로 주변과 비교가 크기 때문에
② 제주지역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③ 학원(과외)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므로
④ 학원에서는 수준에 맞는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⑤ 주변에 보이는 게 다 학원이라서 더욱 보내게 됨
⑥ 제주도민의 학력향상 욕구가 크기 때문에

28. 제주지역 입시학원 수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지역의 높은 교육열
- ② 타시도에 비해 소자본으로 학원 설립이 가능
- ③ 고학력 일자리 부족
- ④ 제주도 유입 인구 증가
- ⑤ 기타

다음은 제주지역의 사교육비 관련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계신 내용과 가까운 번호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제주지역 ‘자율학교’ 및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과후활동, 예체능활동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조금 알고 있음 ④ 잘 알고 있음

30. 위의 ‘자율학교’ 및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등이 사교육비 절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효과가 전혀 없음 ② 효과가 별로 없음 ③ 효과가 조금 있음 ④ 효과가 매우 큼

31. 사교육비 증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력주의’나 ‘학벌주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 ②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
- ③ 어느 정도는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 ④ 크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

32. 다음은 사교육 경감방안의 예상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안 \ 효과	① 효과가 거의 없음	② 다소 효과가 있음	③ 효과가 큼	④ 효과가 매우 큼
자율학교, 창의경영학교 등 확대				
장기적 관점에서의 '철학' 등 인문학 정규과목 도입				
청년층 창업, 노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연금(기금)제도 도입				
제주지역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학원, 개인과의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사교육 시장 억제정책				

33. 기타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